

발화자	발화 내용
황상박	용정에서 시 정부 밑에 영사관 밑에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공산당 취조하던 거기서 하여튼 몽땅 하기로 했기 때문에 50~60 일 묵고 8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내가 참 지나온걸 내가 할 줄 알면 참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내가 할 줄 모르잖아.
정우택	용성에서 2시 55분이나 됐네. 그렇죠?
황상박	오늘이 하지네요 그렇죠?
정우택	네 그렇네요.
황상박	우리 민족이 일제놈들의 압박과 오랑캐놈들 때문에 두문강을 건너 온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은 흑룡강성하고 용정, 화룡으로 많이 갔어요. 800~900년대까지 할아버지랑 온 게 10년에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땅 놓고 한족 사람들이 땅을 붙이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살림을 갖추어 놓고 그랬죠. 우리 큰할아버지 백보가 강원도 그 하천에서 독립군 이병장이 돼가지고 한 500년 거느리다가 상수로다가 잡으면서 조선 8도에다 방을 붙였던 말이에요. 황문서기라고. 이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중국에 들어오게 됐지요. 두만강 건너서 두문으로 해서 연길 북쪽에 쌍봉이라는 8도로. 거기서 막을 치고 한 여름 막을 치고 그러면서 송아 (송가) 한족 땅을 붙여서 쓴 거죠. 막을 쳐서 한 여름 농사를 짓고 봄에 나가서 원산에 나갔어요. 원산에 나가서 그 마을에 화천에 못가니까. 화천에 가면 붙잡으니까 원산 여관에 들어가서 편지를 썼다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 우리 할아버지가 동생이란 말이라. 그때 7살에 들어왔지. 지금 말하면 증조할머니, 백보. 백보네 자식이 서인지, 그니까 증조 할머니 백보,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그 자식이 서이니까 여섯에 할머니까지 일곱이 들어와서 팔도에 자리 잡았다고요.
정우택	언제쯤?
황상박	1910년이요. 땅을 붙여다가 지주가 그 이듬해 홍수가 젖어요. 그래서 팔도로 말하면 쌍봉 앞에 벌판이 있는데 거기 빛을 나면 크게 있는데 밤중에 골몰이 터졌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식솔이 다 거기 올라가 있어. 근데 물이 홍수가 지니까. 거기를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몽땅 죽었지 뭐. 땅 붙인 거 다 붙이고.
정우택	그게 1911년쯤인가요?
황상박	그렇죠. 그래서 소작료도 쥐야지. 지주네 토성안 집애가 모두 쏠려 갔다고. 그래서 그해 붙인 땅은 소작료 안 내고 모두 내고 살았지.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살았다고. 여기 장착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자식들 키우고. 여기 한경시집 가운데 썼어요. 우리 백부가 그때 우리가 소학교 3학년인데 백부네 집에 갇혔단 말이야. 사내 대장부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첫 째는 가정의 생활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집을 잊어버리고 내 한몸을 받쳐라 그랬지. 그땐 무슨 말인지 뜻을 몰랐는데 후에 우편가방 메고선 국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 언제 돌볼 세 없구나 했지. 그래서 연변청년돌격수여 그 다음에 주 모범요, 전국까지 갔단 말이야.
정우택	돌격수 하신 게 언제신 거예요?
황상박	1958년도부터 10월부터 배달을 했지. 38년도생이니까 그때 만으로 스무살. 그때 나이로 스물 하나였지. 그때부터 18년간 우편배달 하고 또 16년간 도서발행, 하나는 신문편지고 도서발행은 책으로 짊어지고 했지. 36년 계속 산길을 다녔지.
정우택	산길 주로 다니시는 곳이 어느 지역에 배달하셨어요?

황상박	팔도 한일 근거지인데, 팔도에 산천을 다 다니고 산도마을이라고 거기서 70~80 리 올라가면 거기가 중국에서 국민당의 첫 시발점입니다. 국민당들 동지 틀었다고.
정우택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황상박	연길시 구역이라고. 지금은 연길시 산도만진이 됐다고. 이전에는 용정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힘과 열정을 몽땅 여기에 받쳤지. 그래서 내가 문학 창작에 흥취된 건 학교때 고등학교 1 학년 다니고, 일년 반 다니고, 2 학년 3 학년까지 다니고 폐결핵이 됐어. 그땐 폐결핵이 못고쳐. 그때 농촌에 와서 일년 반 일했습니다. 일년 반을 농촌에서 노동을 했단 말이야. 모내기나 김매기를 압니다. 한 해 동안 아니까. 치료하면서 했단 말이야.
정우택	이건 청년 학생들이?
황상박	여기 다니다가 돌아왔단 말이야. 내가 열세살에 아버지 잃었거든. 어머니가 내 둘 째 형있고 아래에도 동생 있고 내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하면서 병치레를 했단 말이야.
정우택	거기가 쌍봉입니까?
황상박	팔도 수북천입니다. 쌍봉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 지역은 지역인데 그래가지고 연길 와서 다닐때 우리 반에 문학 창작에 좀 흥취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연변 작가협회 회의가 우리반에서 생긴 게 일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향을 촌에서 소학교때서 작문 모집, 중학교때도 작문 없지 거기 가서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작문 수업이 있다면 또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 그때 연변에서 처음 나왔지 우리 팔도에서 농민이 이전에 탈관이 없잖아. 농민이 설계해서 기계로 했다고. 팔도 농민이 했다고. 그걸 노래 가사를 그땐 모른다 절 맞춰서 쓰지. 그때 연길에서 탈곡기가 보급돼서 용성에 가게 됐단 말이야. 음악을 하는 사람이 소경인데 자기 마을이 선선하게 하는데 거기 저절로 선율이 있더라고.
정우택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있던 노동요가?
황상박	해방 됐단 말이야. 이젠 탈곡기가 있으니까 해방 됐단 말이야.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 촌에 있는 농민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사처럼 썼지. 그게 연길에 보냈는데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게 무슨 가사야. 농민이 이런 가사가 있어서 곡상을 보냈는데, 가사 없이 이 사람을 이거 보고 소경이라고 한다고. 어습푸레하게 본단말이야. 복도에 나가서. 이튿날 시창을 하라고 하는데 연변에 유명한 동이철요, 이런 사람들이 보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돌려 보지. 그런데 이 농민이 보더니 이런 가사 찾는 중이다.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곡이 짝 나와버렸어. 선율이 나왔지. 난 또 우리 처음 거기서 가사가 나왔단 말이야. 이래서 탈곡된 거지. 이튿날 시창하는데 곡이 좀 순수하지. 탈곡기 돌아간다 에에~
정우택	한 번 좀 해주시겠어요?
황상박	사기동무 알아요? 에 탈곡기 돌아간다 벧단을 섞겨라 황금나사 ○○ 웃음꽃이 피어난다. 앞뒷뜰에 쌓인 태산갈에 낮같이 숨쉴 빠른 우리 손에 스리슬쩍 녹아난다 에헤라 에헤라 당이 ○○ 영면하여 오래 풍습 이루었네 선참으로 공양 받아 조국 건설 지원하세 조국 건설 지원하세 지원하세. 이게 작곡가가 가사가 짧다는 거지 이걸 늘어달라는 거지. 조국 건설 지원하세 지원하세 지원하세.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말할 때 가사 짧아가지고 나중에 더 길게 했다는 거지.
정우택	이게 몇 년 입니까?

황상박	56년도 가을 되지.
정우택	그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황상박	네 그렇지요. 이게 우리 조선 민족이 처음으로 탈북한 거라고. 한쪽으로. 그래서 내가 배달할 텐데 그러니까 가능한가. 우편배달부 촌에 갔을 때 그때 스피커를 집집마다 문 밖에서 확성기를 달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 나오더라고. 이야 그때 밤잠 못 잤지. 이게 나왔구나. 황상박 작사. 이 노래는 다른 노래도 없고 이런 노동가요가 없단 말이야. 벌써 딱 들어봐도 탈곡기 돌아간다 벼단을 섬겨라 황금나사 들어간다 웃음꽃이 피어난다.
정우택	노동가요라고 하는 그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황상박	이전에 있었지만 이건 생산 노동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작사고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
정우택	이게 실제로 탈곡하면서 불리기도 했나요?
황상박	네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환곡하면서 부른 게 있습니다.
정우택	그 전에 선생님은 조선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요로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황상박	이 노래가 나온다면 연합당이 나온다면 좋은 생산대대 5~600 되는데 탈곡기 대가리 바꾸면서 계속 돌지. 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했지. 노동 회오리 계속 했고.
정우택	그 전에 노동요라고 민요로서 노동요가 한국 같은 데는 모내기 하고 그럴때 하는데 여기에서도 들어보셨나요?
박정석	다른 모내기 노래 연변에도 또 있습니다.
정우택	지은 노래 말고, 선생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왔던 게 있으니까?
황상박	모내기 노래라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셨나요? 노래 지으실 때.
정우택	모내기 노래 발같이 노래. 이런 창작 과정마다 끝이 없습니다. 실제 생산 노동 가운데서 내 고향 오솔길이 중국 조선족 사회도 그렇고 중국에 유명한 가수가 장따우에라고 불렀습니다. 한족 사이에서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kbs 에서도 불렀고. 내 고향 오솔길이 어떻게 탄생 됐냐면 이게 내가 30 년동안 농촌길을 걸으면서 지은 거지요. 우리 산촌 길의 명맥이라는 것이 산에 산단 말입니다.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산열매, 그 다음에는 산뿌리, 더덕, 도라지 캐서 농촌에서 그걸 가지고 결부해서 심고. 이 오솔길이 어떻게 나게 됐는가 산에 길 난 거, 이거 우편 배달부 하면서 공사 스피커 확성기에서, 큰 나밭에서 고향길이라는 노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향길이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봄에는 민들레꽃 피어나고 가을이면 동굴서 실어 들이고, 그날 배달 다 하고 와서 다리를 마을 앞에서 다리 씻는데 공사 방송에 탁 나오더라고. 내가 오늘 돌아온 오솔길은 이것보다 백 배 낫다. 내가 돌아온 오솔길은 산간의 농민들이 명줄기로 삼고서 여기서 캐다가 뜯어다가 사는데 그게 봄이면 봄나물, 가을이면 산열매 뜯고, 그래서 그 즉시로 들어가서 그 노래 나오는 걸 기억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은 고향길이라는 데서 내 고향 오솔길을 쓰겠다 해서 곡을 썼지. 연변에 유명한 작곡가 최상명 선생이 나를 줬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만 가수도 한 곡 하라고 했고. 또 가수도 이 사람이 잘 불렀단 말이야. 명곡이라는 건 가사만 잘 써서 안 되고, 노래만 잘 불러도 안 되고, 작곡만 잘 해도 안 되고.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진용선	한국화라고 한국으로 귀국한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가수가 있어요. 여자가수. 아예 귀화한 가수. 조금 하다가 잘 안 먹히니까 연변에서 있었던 사람. 한국으로 갔는데 여기서 워낙 유명했어요. 새노래 라는 책 표지에도 나오고. 그렇죠?

황상박	그때 문화재 후기입니다. 80년대 초기에 79년도인가 그때 문화대혁명때 양반시 중국에 양반시라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계 보급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노래가 나오니까 저거 누가 지었는가, 선전부에서 못하게 했다고. 그런데 연변 방송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현장 녹음이라고 군중들이 너무 요청이 많으니까 사흘이라던가, 철십 몇 통의 편지가 왔대요. 이 노래 듣겠다고. 그래서 동유철 선생이 내보내 주었지.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노래 많이 썼습니다. 이 두개 노래가 두 개 특징이죠. 이 노래가 특징이죠. 생명력이 오래 가죠. 반 세기 동안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 이 노래 90년대 30년 동안 불렀죠. 지금도 춘절야에서 이 노래 제일 먼저 불렀거든요. 불르고 나왔거든요. 중국 조선족에 대표적인 서정가요죠. 문학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생활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용선	가요도 그렇지만 아리랑으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된장 아리랑인가?
황상박	그렇지요.
진용선	된장 아리랑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지난 번 시집에 들어가 있죠?
황상박	그건 내 된장, 우리집에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랑 있을 때 된장을 직접 삶아가지고 절구에다 찧고 밟고 벗집으로 해서 메주 만들고 그렇게 했지요. 과정이 없다는 말은 아리랑 쓰고 된장에 대한 노래 쓰는데 한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이 그게 없지. 과정이. 그래서 나는 이 된장이 우리 조선족의 역사가 여기 있다.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서 화전을 일구었던 말이에요. 화전으로 피땀뻘 콩알인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절구질에 여기 있을 거야. 내가 가방 가방 저기 들어가 있네요. 할머니도 그렇단 말이야. 절구질 하는 데 그러고 다음에, 벗집으로 동전 매서 띄운단 말이야. 내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민족이 좋은 맛이다 어쩐다 문학이라는 것은 형상성, 과정, 이런 게 있어야 큰소리만 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 이전 글을 잘 쓰나 못쓰나 처녀작을 18살에 발표 했으니까 연변일보에, 그때부터 낸 38년부터 78세니까 그럼 60년 전인가? 반세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문화대혁명 10년 빼야지. 그때 계속 쓸때란 말이야.
정우택	된장아리랑은 언제?
황상박	내 신문 가사 신문 꾸리면서 내 글은 적게 냈어요. 내가만 내는 게 아니라 인민의 권리인데, 인민을 위해 다른 사람들 쓰게 하고. 내가 초고로 써놓은 게 많은데도 다른 사람 쓰게 합니다. 그 사람이 텔레비전 나오고 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면 전화합니다 기쁜 마음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은 살 수도 없고 이런 말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네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먼데서 전화오고 흑룡강에서 전화 오고. 내 가사기 텔레비전에 나온다. 모르는 사람끼리 신문이 저를 맺어준다는 말입니다.
정우택	그렇게 울려퍼진 곡들이 많습니까?
황상박	대단하죠 많죠. 한 것도 대단합니다. 우리 20년이란 말입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여기에 정성을 쏟아 부었거든요.
정우택	해남강여수리는?
황상박	96년 4월에
정우택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진용선	그렇게 말하자면 하실 이야기가 밤을 새워도 끝이 없습니다.
황상박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말하려면 또.

진용선	선생님 처음 오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황상박	네 간단히 말할게요. 용정시 문학관에 반 년 들렀다가 시 방송국으로 전근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문예 편집을 하게 됐죠, 방송을.
정우택	연변인민방송국?
황상박	용정시민방송국. 거기서 문예 책을 냈죠. 노래를 내보내게 됐는데 이전의 노래만 내보내니까 밑에서 실종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사 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곡하는 사람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처음엔 그때 소책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 소책자를 하니까 한 개도에 보내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그냥 신문하자. 해남강은 조선족의 강이고 조선족을 대표하고 여울소리는 우리 목소리다 해서 여울소리로 기준을 했던 말입니다.
정우택	기준이라는 것은?
황상박	단위, 방송국 소속이었는데 처음에는 네 개인가 등차를 하고 타자를 했어요. 이걸 맡았어요. 그런데 용정시 작가회의에서 이걸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해서 4 년 꾸렸는가. 반 년? 근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전화가 왔다고요. 이걸 그래서 인쇄를 하자. 목적은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는가 우리 조선족에게 주입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낡은 노래 내보내니까 이거 또 내보냈냐 그런단 말입니다. 내 저 직책이 문예 프로에.
정우택	계속 책임자로?
황상박	네 문예 프로 책임자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단 말입니다. 내가 작사랑 작곡을 해서 내보내니까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인쇄를 해서 등사를 해서 내보내니까 한국의 불구자가 보더니 좋다고.
진용선	그게 언제예요 인쇄한 게 언제예요?
정우택	96 년도 3 월에 창간해서 인쇄는 96 년 10 월부터.
진용선	한국에 누구라고 했어요?
황상박	김부식
진용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한국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예요?
황상박	지체장애인, 불구.
진용선	여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황상박	93 년도인가 수교하자마자 와서 연길에서 살았지. 94 년도나 95 년에 들어왔다. 그 사람이 한중문화협회 가서 중국에 이런 사람 있다 소개했던 말입니다. 자기 돈을 팔면서 연길에 가서 자전거로 배달을 했어요.
진용선	선생님이 직접이요?
황상박	우편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빌려다 타고서 했지
진용선	어떤 사람들이요?
황상박	예술 학교, 가무단, 방송국이요.
정우택	해단강 여울소리 이걸요? 언제까지 돌리셨어요?
황상박	매달 나오면 계속 돌렸어요. 인쇄비 300 원씩 대줬거든요.
정우택	매달 대줬다고요?
진용선	매달 300 원이에요 아니면 기수가 나올 때마다 300 원을 대줬어요?

황상박	한 개가 두 달치가 한 번에 나오지.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
진용선	두 달에 하나씩 나오나요?
황상박	달은 그냥 두 달치 나오는데 두 달분을 한 번에 찍어서 보낸단 말입니다.
정우택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네요 두달치니까?
진용선	결국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네요.
황상박	인쇄비 겨우 대고 우편으로 하면 많이 대지. 대단하지
정우택	그럼 이때는 이미 직책에서 나오셨던 겁니까?
황상박	그 이듬해 나왔지. 96년도니까, 내가 98년에 퇴직했으니까. 2년동안 재직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처음에는 우리 김부식 선생이 인쇄하고 내보내니까 인쇄물부터 판단 말입니다. 출판국에다가 판권 없는 인쇄물이 돌고 있다.
정우택	누가 그랬어요?
황상박	그걸 물어보면 안 알려 준단말입니다. 우리가 돌린 거 어디서 얻어가지고 꾸려서 얻어서 했던 말입니다. 출판국에서.
정우택	인민출판부?
황상박	연변출판국인데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갔지.
정우택	아는 사람들이?
황상박	모르는 사람들이지. 동무 여기서 했는가. 이걸 퍽 내놓더라 말입니다. 이거 동무꺼니? 이거 비겁한 거 아니니. 지금 가라오케니 뭐니 다 있지 그것보다 이게 얼마나 좋아. 동무 괜히 이거 꾸리자 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용정시에 전화 한단 말입니다. 소속을 어떻게 하는가. 돈을 얼마 내라고 그때 돈 천원 내라고 하는데 지금 만원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리 동창이 소학교때까지 동창이 연길에 김영숙이라고 북부 공장을 하는데 전국 그런 모범을 하는데 같이 달려갔지.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갔지. 어찌 왔는가 우리 동창이. 우리 지하고 내하고 우리 동창이 중앙 수장이 지하고 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어찌 합니까 바빠 이리 왔다고 내놨단 말입니다. 지금 판권 내라는데 돈이 없는데 천원 내라고 하는데 천원 봉투에 넣어서 주더랍니다. 그때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돈 어디서 천 원을 얻어요.
정우택	그래서 선생님 이게 몇 기까지 나왔어요 지금까지?
황상박	삼백오십인지.
정우택	매달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인데 인쇄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기수는 같은데 발간이 그렇게 되는 거지.
황상박	그게 한국으로 치면 편법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는가. 이걸 처음에 삼백원씩 주는데 온 다음에 정식으로 꾸리게 됐단 말입니다.
정우택	그래서 판권 받은 게 몇 년이세요?
황상박	96년 10월 되는가?
정우택	문예책임자로 계실 때네요?
	인쇄 받을 때가 선판권 받을 때가 돼요?

황상박	그런데 아리랑 노래를 계속 같이 하시죠. 김창희 선생이 쓴 동명 아리랑.
	그게 아니라 아리랑에 대한 그런거.
정우택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있으면 거길 갔다 오는데 하루에 6 시간이 걸려서 이를 걸려요. 가는 시간 여섯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십분 오는 시간 여섯 시간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 나빠서 다음에 목단강 갈 때, 저는 두어 번 갔다 왔는데 기사들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황상박	그 사람이 계속 아리랑을 많이 썼어요.
정우택	지금도 계속 보내요?
황상박	그런데 몸이 안 좋은지 조선어 문자의 날에 조선어 문자의 날을 정했어요.
정우택	누가요?
황상박	자치주에서요. 자치주정부에서. 이 날을 맞으면서 주 조선어문날 응모, 글 모집, 가사 모집 하게 돈을 줍니다. 만원, 일만냥 이렇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번엔 외지 사람들 흑룡강, 김창엽, 써 보내야 되겠는데 요즘 아픈지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외지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보내려고 그래요. 주정부에서.
정우택	주로 아리랑 가사를 많이 보내는 데예요?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는 겁니까 희망하는 겁니까?
황상박	고생하는 것도 있고 희망하는 것도 있고 개혁개방 하는 것도 있고.
정우택	잘 살아 보세 이런 겁니까?
황상박	네, 민속 풍속에 관한 것도 많고 내가 쓴 된장 아리랑이나, 그런 아리랑도 있지. 그네 뛰는 무슨 아리랑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게 또 있어요. 신문에 가서 보죠. 여기는 특성상 신문에 실리면 작곡가들이 달라붙어요. 자기가 봐서 괜찮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이 사람이 누군가 불문 없이 작곡가들이 그걸 작사를 해요.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 가사를 두고 해서 나도 가사 좋아서 하면 유명 작곡가가 따라 붙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신인가수 등용하는 게 뭐죠 슈퍼스타 K 같은 게 이런 제도예요. 우리나라처럼 눈에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띄어서 최상명 선생, 안국민 선생도 따라붙고 스타 작가가 되는 거예요.
정우택	이게 방송국에 바로 등장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황상박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연길에 가무단 작곡가 곡에서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여기에 영상까지 덧붙이고. 그럴때 전화 온단 말입니다. 김창희 선생도 텔레비전에 났어요.
정우택	어떤 노래들이 픽업이 됐나요? 아리랑의.
황상박	김창희 선생은 동명 아리랑, 최연변 아리랑, 연변아리랑, 새연변 아리랑, 이런 식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게 많아요.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어떤 음악적인 사회배경이 한 몫 하는 거예요. 오선도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이게 한국 시인과 달라서 여기는 시인이 동시에 작곡가들이 작사로 만드는 거죠.
정우택	시인들이 동시에 작사가가 되나요?
황상박	그렇죠. 시인들이 동시에 작사가가 되고.
정우택	시인들이 나는 시만 쓰겠다 작사는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황상박	없지.
정우택	이상각 선생님도 그렇지 선생님도 그렇지 여기 시 쓰는 사람들은 동시나 시나 다 노래는 있죠. 한국은 그게 안 되는데.

	여기는 시가 운율에 시를 쓸 때부터 운율에 맞춘 시를 쓰시나요? 서사시 같은 거.
황상박	시 쓰는 사람은 노래로 만들겠다, 그럼 어디다 보내겠다 우리한테 보내면 오백부 최소 오백부거든요. 처음엔 천부씩 찍었어요. 지금은 오백부입니다. 이게 일곱개 나라에 가고, 관에도 가고 96년 한국 KBS 2기 연수생으로 갔어요. 내가 가서 소개했어요. 나는 중국 조선족으로 우리 노래가 중국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 캐나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이런 민족이 있는가 막 박수치지. 그때 내가 또 힘을 받았단 말입니다. 5년동안 김부식이가 대주었던 말입니다. 근데 대줄 사람이 끝났어요.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알아봐 줬는지 오성복 이사가 찾아주더라고요. 이거 책임진 주인. 이거 지은 사람. 오정묵이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분한테 신문을 다 줬단 말입니다.
정우택	그래서 명예 발행인으로?
황상박	지금 발행인으로 있어요.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명년에 4월에 크게 대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주역, 철학 이런 걸 잔칫날 좀 줘서 연명한다 말입니다. 민족이 신문만은 끊어지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보내지.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 힘을 얻는가. 저 흑룡강 사람, 장춘 사람들 전화 온단 말입니다. 한국 연변 위성으로 나갑니다. 텔레비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작곡해서 거기 나온다는 말 들을 때마다 힘이 나죠.
정우택	해당강 여울소리에는 그럼 중국 전 조선족들이 음악 가사 원제죠.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제일 많이 올 때는 한 달에 몇 개 정도 쌓여 있나요?
황상박	한 달에 부광까지 내서 200~300까지 증간호까지 하죠. 200수, 300수까지 하죠. 보통 여기 한 면이 24수거든요. 여기서 4를 곱하면 96이지 거의 100여수씩 나가죠.
정우택	여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안 신는 것도 있죠?
황상박	주제는 잘 지었지만 구별하고 구쳐야 될 게 있지. 제목도 그렇고.
정우택	선생님께서 교정을 해서 알려주시죠.
황상박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내가 못내도 그 분들께 고쳐서 음반 세면서 내준다는 게 그겁니다.
정우택	그 분들에게 이렇게 고쳤다고 연락을 드립니까?
황상박	안 하고 그냥 내보내지.
정우택	예전에는 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보내시나보네요.
황상박	그렇지 그거 언제 하고.
정우택	그럼 제일 많이 올 때는 200수가 왔는데 100수는 탈락이 되고 그러나요?
황상박	처음 쓰는 사람들께 그런데 많이 소개하지. 20년 하다 보니까 잘 쓰던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곡에 못붙었던 말입니다. 미쳐 가지 못하는 가사묶음 해서 여섯 개까지 되돌아보는 가사묶음까지 냈지.
정우택	그 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황상박	그렇죠. 모두 대부분 돌아간 사람들에게 곡 붙여서 낸 게 최근에 있습니다.
정우택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해서 아리랑 고개 가서 해야겠네요.

황상박	조상들이 고생에 비하면 신선놀음이란 말이지. 우리 민족에서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고 응당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노래 지어야지 누가 해주겠는가. 내 신문 내가 꾸리고 내가 해야되는데. 이 인민권리 누가 줬는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 지금까지 가방 매고 그렇게 다녔어요. 내 신문 떼라면 없는 사람들이 해줬단 말이야.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무슨 말을 남겼는가 하면 나 그거 신문 못 대준 게 있는데 그거 좀 대줘라. 나는 그때 몰랐지. 근데 자식들이 만나면 말하니까 알지. 그런 말을 돈 주고 삽니까? 못사지. 그런 말 들을 때 내가 그렇게 해드렸구나 싶은 거지.
정우택	박수 한 번 쳐드려야겠네요. (박수소리)
	참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진용선	움직여서 이제 이동해서 하시죠. 이번 조사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고 선우씨가 잘 알고 출판사에서 잘 알고
	연번의 출판 역사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정우택	지금까지 여기에서 여울소리에 실렸던 것들 중에 아리랑만 좀 뽑은 게
진용선	그때 뽑아 달라고 부탁은 드렸어요.
황상박	근데 이상각 선생님한테 우리가 다 뽑아서 상각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거기서 몇 개 뽑아서 주긴 다 줬어.
정우택	그럼 선생님께서 이상각 선생님께 다 줬는데 이상각 선생님이 몇 개만 뽑으신 거예요?
진용선	그게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황상박	이상각 선생은 그걸 다 뽑아서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고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진용선	근데 그 분이 그걸 보관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정우택	안 되면 다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합본 있으니까
진용선	제가 2 년 전에 뽑아달라고 해남강 여울에 흐르는 아리랑 이렇게 하려고 말씀 드렸는데 저를 주지를 않고 이상각 선생님한테 던져주니까 제가 이렇게 못하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황상박	중국 연변에 이런 제 몸 팔며 병도 나며 이런 머저리 살고 있다 기억하면 됩니다.
정우택	시간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좋겠는데...
	(장소 이동)
황상박	이 고개가 순환의 고개 우리의 고개 이 고개를 넘어서 저기 보이는 두만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개나리 붓짐을 지고 이 고개를 넘어서 용정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혹한 우리 일제놈들한테 쪽박을 차고서 넘어 왔습니다. 고개 넘을 때 고개가 구비구비 아흔아홉 고개인데 밤 중에 일본놈들이 총 칼로 지키고 있었어요. 몰래 도주하고. 그래서 우리 고개를 넘어가서 용정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개를 눈물의 고개, 원한의 고개, 피눈물의 고개, 우리 조선족들을 오랑캐 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처자식을 이끌고 당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본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착취를 하고. 살자면 총과 칼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313 용정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용선	이게 옛날 도로가 아니잖아요 옛날 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황상박	원래는 이게 아니었지. 옛날에는 이거 한구비 돌자면 아흔아홉 번, 이거 돌자면 열 몇 고개 있잖아. 내려갈 때도 구비가 그렇고 모두 아흔아홉 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소금 장사꾼도 이 고개를 넘어서 소금 장수들이 다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고갯길을 명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이 중국 후대 사람들이 오랑캐영을 잇을 수 없습니다.
정우택	이게 조선에서 이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문이 몇 개 어디에 대표적인 게 있었습니까?
황상박	도문이 있었지. 개신문, 삼합, 백금이 있고, 남평에 있고, 송선에 있고 두만강 유역에 있고.
정우택	이쪽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
황상박	이게 삼합으로 교두가 보입니다. 다리가 보입니다. 그걸 건너서 여기로 걸쳐야 됩니다. 이 고개가 이전에는 높았습니다. 이게 다 보세요. 저기 아치가 됐다고. 다 정리가 되면서.
정우택	바로 이 밑이 두만강?
황상박	이 밑에 내려가면 바로 강이고 삼합.
정우택	원래 여기를 아리랑 고개라고 했잖아요
	아리랑 고개는 우리 민족의 수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황상박	그 아리랑을 좀 아리랑 고개를 보면
	내가 잘은 못하지만은
정우택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상박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진용선	고생하셨습니다. 또 교대에 가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끝)